

불펜 투수 김현준 '희망 찬가'...풀타임 꿈 키워간다



KIA 고졸 6년차...두산과 더블헤더 1차전 6회 출격 끝까지 삼자범퇴 8월 한화전 쓴 실패 이후 기술·멘탈 모두 가다듬으며 한발 더 성장 "스탠스 한발 정도 줄였더니 힘 더 실려...체중 불러 구속 늘릴 것"



KIA 타이거즈 김현준이 화려한 조명 밖에서 '풀타임 꿈'을 키워가고 있다. 마운드에서는 선발과 필승조에 시선이 집중된다. 이들은 초반 싸움을 이끌고, 리드를 지키면서 박수를 받는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꼭 필요한 선수들이 있다. 이미 흐름이 기운 경기에서 이닝을 책임지면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선수들.

화려하지는 않지만 불펜에서 김현준이 박수를 받고 있다. 최근 팀이 '고춧가루 부대'로 역할을 톡톡히 하는 데도 김현준의 활약이 있다.

고졸 6년 차 김현준은 17일 두산과의 더블헤더 1차전까지 올 시즌 16경기에 나와 16.1이닝을 소화했다.

4월 30일 KT전을 끝으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김현준은 만반의 준비 끝에 1군에서 후반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후반기 첫 등판이었던 8월 11일 한화전은 올 시즌 가장 아쉬운 경기가 됐다.

이날 KIA는 7-1로 앞선 상황에서 9회 마지막 수비에 들어갔다.

이승재가 연속 볼넷으로 1사 만루에 몰렸고, 김현준이 이어 등판했다. 하지만 김현준도 밀어내기 볼넷과 중전안타를 허용하고 몰려났다. 급히 마무리 정해영이 투입됐지만, 한화 최재훈의 동점 스리런이 나오면서 경기는 7-7 무승부로 끝났다.

이 경기가 끝난 뒤 김현준은 엔트리에서 말소됐고 9월 21일 KT전을 통해 다시 1군 마운드에 설 수 있었다. 그리고 10월에는 7경기에서 8이닝을 소화하면서 2피안타 3볼넷 6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김현준은 쓴 실패 이후 기술적인 부분, 멘탈적인 부분 모두 가다듬었다.

김현준은 "전력 분석 코치님들과 투구폼을 보면서 스탠스를 한 발 정도 줄였다. 그 뒤로 힘을 쓰는

게 좋아졌다. 스탠스 줄이니까 힘을 다 실어서 던지게 되는 것 같다"며 "과정철 코치님께서 내가 나가서 상황이 점수 차가 많이 나가나 많이 지고 있을 때니까 수비 힘들지 않게 하면 좋겠다고 하셨다. 공 잡으면 바로 승부 하려고 한다. 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좋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좋은 결과를 내면서 박빙의 승부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준은 지난 15일 KT 원정경기에서 7-7로 맞선 9회말 마지막 투수로 나와 갈 길 바쁜 1위 팀의 승리를 저지했다.

17일 더블헤더 1차전에서는 피 마리는 4위 싸움 중인 두산에 상대로 3-2로 앞선 6회 출격, 탈삼진 하나 더한 깔끔한 삼자범퇴를 만들었다. 팀은 이 경기에서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김현준은 후회 없이 마운드를 내려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현준은 "후회 없이 해야 한다. 던지면서 계속 후회가 남았다. 지금은 마운드 올라가면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거 빨리 잊으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매일 함께 움직이면서 실패와 성공의 순간을 함께하는 만큼 불펜의 호흡도 중요하다. 불펜 선배들의 조언은 김현준에게는 큰 힘이다.

김현준은 "형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해준다. (장)현식이 형은 구위 믿고 가운데 보고 던지라고 이야기해주고, (고)영장이 형은 슬라이더와 포크볼 좋으니까 다른 구종 더하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 완벽하게 만들라고 조언해준다"고 언급했다.

김현준은 남은 시즌을 통해 '풀타임'이라는 목표를 위한 밑그림을 그릴 생각이다.

김현준은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고 있다. 못 던져도 배우는 게 있어서 좋다. 올해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풀타임 한번 뛰어보고 싶다. 시즌이 끝나면 체중을 불러서 구속을 늘리는 등 준비 할 것"이라고 입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 감독 대한민국 체육상

선수·지도자 등 9개 분야 선정
광주시청 사격 이지석도 수상

심재용(사진) 광주시청 육상 감독이 지난 15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59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체육상 지도상을 수상했다.

1963년 제정된 올해로 59번째를 맞은 '대한민국체육상'은 매년 우수선수과 지도자, 체육진흥 및 연구 등 총 9개 분야(대통령상 7개 부문, 문체부 장관상 1개 부문, 장관감사장 1개 부문)에서 공적이 있는 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심재용 감독 외에 송종국 경희대 교수(연구상), 대한하키협회 신정희 부회장(공로상), 대구시체육회 박영기 회장(진흥상), 광주시청 사격팀 이지석(극복상), 주몽학교 이혜정 교사(특수체육상), 한운수 경북대학교 교수(심판상), 기계체조 국가대표 류성현의 아버지 류정훈 씨·다비안 김영남, 김영택, 김영호의 어머니 정영숙 씨(이상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등이다.

대한민국체육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0만 원이,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에게는 감사패와 소정의 부상이 수여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정민, 초대 '공격 골프 여왕'에

최종라운드 버디 10개로 역전극...5년 7개월 만에 우승

이정민(29)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5년 7개월 만에 우승하며 초대 '공격 골프 여왕'에 올랐다.

이정민은 17일 전북 익산시 익산 컨트리클럽(파 72)에서 열린 KLPGA투어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10개를 뽑아내는 맹타를 휘둘러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는 KLPGA투어 사상 처음으로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치러졌다.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은 앨버트로스 8점, 이글 5점, 버디 2점, 파 0점, 보기 -1점, 더블보기 이상 -3점을 매겨 순위를 가린다. 같은 타수라도 버디가 많은 선수가 훨씬 유리하게 공격적 플레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선두 박민지(23)에 8점 뒤진 채 최종 라운드에 나선 이정민은 버디 10개에 보기 1개로 무려 19점을 끌어 담은 끝에 최종합계 51점으로 경기를 뒤집었다. 2016년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통산 8승을 달성한 뒤 긴 침묵에 빠졌던 이정민은 안나린(25·47점)을 4점 차로 따돌리고 화려한 부활을 알

렸다.

먼저 경기를 끝내고 18번 홀 그린 옆에서 기다리던 이정민은 우승이 확정되고 동료 선수들이 축하인사를 건네자 환한 미소로 우승의 기쁨을 표현했다.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받은 이정민은 상금 7위(5억3199만원)으로 경중 뒤편했다.

이정민은 후반 9개 홀에서 버디 7개를 몰아쳐 대역전극을 연출했다. 특히 마지막 3개 홀 연속 버디로 승부를 갈랐다.

9번 홀까지 버디 3개에 보기 1개를 곁들이는 평범한 경기를 펼쳤던 이정민은 10번 홀(파5) 버디에 이어 12~13번 홀 연속 버디로 우승 경쟁에 뛰어 들었다.

16번 홀(파3) 버디로 선두 안나린에 1점차로 따라붙은 이정민은 17번 홀(파5) 버디로 1점차 단독 선두로 올라섰고, 18번 홀(파4) 3m 버디 퍼트를 잡아넣어 우승에 쐬기를 박았다.

두 차례 침착 버디를 포함해 6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16번 홀까지 선두를 달렸던 안나린은 막판 3개 홀에서 1개의 버디도 뽑아내지 못해 통산 3승을 다음으로 미뤘다.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하는 이정민. /연합뉴스

버디 8개로 16점을 보낸 장수연(27)이 박민지(23)와 함께 공동 3위(45점)에 올랐다.

시즌 7번째 우승 기대가 높았던 박민지는 6번 홀(파5)에서 두번째 샷을 페널티 구역으로 날려 데 이어 네 번째 샷이 그린을 넘어가는 실수가 이어지면서 트리플보기를 적어낸 게 뼈아팠다.

박민지는 사상 첫 시즌 상금 15억원 달성에 600만원을 남겼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2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스페이스 독 3: 트로피컬 어드벤처
3관	보이스, 용과 주근개 공주
4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5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6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9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
7관 씨네카를	보이스, 기적
8관 씨네카를	007 노 타임 투 다이, 신개월의 미래, 국민영웅은 땀의 결실, 박영규의 내평의왕새살, 인연의 시작, 푸른 호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11시 음악산책 7
박은식의 피아노의 숲
일시 : 2021. 10. 27. (수)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



GAC기화공연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_현악 4중주
일시 : 2021. 10. 30. (토) ~ 11. 06. (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 062-613-8235

